

#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HDC현대산업개발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규명 필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을 비롯해 해당 회사 3곳 직원 11명(현산 5명·가현 3명·광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 이모(50)씨와 현산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구장 김모(54)씨·2단지 차장 최모(45)씨·2단지 과장 윤모(41)씨·품질관리실장 박모(51)씨, 가현 현장소장 김모(44)씨 등 3명, 광장 감리 이모(65)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지대 무단 해체는 현산 직

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현 측도 “공법 변경에 앞서 구조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지지대를 해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장 측도 “지지대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힌 만큼 증거 조사를 위한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범 기자

# 동구 불법 노상 적치·노점상 일제 정비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5~6월 두 달간 집중 단속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 1㎡ 초과인 경우 10만 원을 합산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메타이어·물통·라바콘·화분 등)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 광산구 삼도동원훈련장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국방부 부지 사용 협조...6월 말 개방 목표

광산구가 삼도동원훈련장 인근 내산동 409-1, 589-3번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 임시공영주차장은 병풍산 탐방객과 삼도동원훈련장과 인접한 쌍내마을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병풍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면서 쌍내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무분별한 주차로 통행불편과 노약자 교통

사고 등 위험을 감수해 왔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도동원훈련장 인근 국방부 소유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부지 사용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시공영주차장은 총 19면(면적 630㎡)으로, 6월 말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임시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탐방객 주차편의는 물론 쌍내마을 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 시기에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도심 내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수요가 큰 지역 내 1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 서구, 광주리(RE) 참여업체 내달 10일까지 모집

서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4월까지 4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제6회 광주리(RE) 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로,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판매업체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6회제를 맞는 이 장터는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구청과 광주신세계백화점, (사)창업지원네트워크 간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공예품, 잡화, 의류 등 참여업체 제품의 홍보·판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리(RE)’라는 공익 목적의 장터로 브랜드화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제6회 장터가 열리고, 10월 중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2 광주국화전시회’와 연계해 제7회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장터 및 참여업체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서구청 일자리센터(062-360-7603)로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이달호 기자

# 서남해안 인접세관 합동 대응훈련

### 광주본부세관, 해상밀수 합동훈련... '해상밀수 꿈짜막 마'



광주본부세관은 23일 날로 기승을 부리는 해상밀수를 막기 위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접세관은 목포·군산 세관, 제주·완도 세관, 광양·여수 세관 등이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 상당의 담배 85만갑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이 적발되는 등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권현안 기자

이번 훈련은 지난 11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6개 세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마약류, 담배 등을 밀반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특히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모든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을 높이고 인접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권현안 기자

# 광주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학교 관리자 이해도 높여

### AI교육 선도학교 관리자 워크숍·AI와 미래교육 특강 등



광주시교육청이 23일 텔리하우스(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

숍은 학교 관리자 등 85명이 참석해 AI와 미래교육 특강,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시교육청 김환식 부교

육감이 강사로 나섰다.

'AI와 미래교육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을 주제로 ▲AI의 영향 ▲AI교육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간) ▲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는 학생 간 협업 및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인공지능교육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학교다.

기존의 일방형 고정형 컴퓨터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김도기 기자

#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6월부터 정상운영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을 중단한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은 휴장기간 동안 오일스텐, 도배·장판 등 생태환경에 맞는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 전기 난방을 온돌로 교체해 한옥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재장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시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늘어나는 관광 숙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부지 9684㎡ 한옥 4개동에 20객실 43개방 규모의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운영해 왔다.

숙박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관광과(061-749-4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